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auri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연구	이상민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	조영진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유광흠
수시 과제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조영진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김은희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연구	김성준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수정

기본과제

①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연구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지구 지정 이후 지난 50년간 산업발전 및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 국토 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화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된 지 반세기 이상 지남에 따라 산업단지 시설 노후화, 업종구조의 변화, 도시 확장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갈등 등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2000년 후반 4개 시범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기반시설 정비, 업종 개편, 지원시설 등 노후 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으로 추진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서도 공간환경(특히 공공영역)의 개선에 대한 고려나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2017~2026)'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 안전시설 확충, 교통, 주거 인프라 재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건강센터, 기숙사 등 단위시설 조성 중심이며, 일상적 근무 또는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에 이 연구는 노후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산업단지의 공간환경(가로, 공공공간, 경관 등)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 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단지 내 종사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환경의 개선 방안을 제안, 향후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②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범죄발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지수는 2018년 50.8%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범죄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항목에서도 범죄발생이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범죄발생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국민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00년대 초반 범죄의 사전 예방 및 거주자의 범죄 불안감 감소에 기여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가 도입되었다. 2018년 기준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 부산시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약 1,500개소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앙부처의 범죄예방 활동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CPTED 사업을 통해 다양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각 시설·기법들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개별 시설·기법의 범죄예방 성능에 대한 논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중국에는 CPTED 사업의 실효성 저하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에 활용되는 주요 시설·기법들을 도출하고, 각 시설·기법의 범죄 유형별, 장소 특성별, 시간대별 범죄예방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간적으로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시설·기법의 범죄예방 성능을 기반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실효성, 지속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일반 국민들이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효과를 인식하고, 지역에 설치된 CPTED 시설·기법의 일상적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영진

③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8년 전국 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은 약 37.1%에 달하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후건축물의 증가로 해체·철거·리모델링 공사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의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서의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로 화재안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건축물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재고 약 719만 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건축물관리법」이 발의되었으며, 올해 4월 30일 공포되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공포된 「건축물관리법」은 규율하고 있는 위임사항이 방대하여 원활한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규정과 지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성격을 반영하고 일관성 있는 법의 집행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생애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광홍

수시과제

①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2014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제도도입 당시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이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8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가구주택, 아파트(50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범죄예방 의무적용 건축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2019년

7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신규로 의무적용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조례 제정이 확산되어 2018년 기준 206개의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범죄예방 사업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이를 지원하는 법령의 부재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행 건축물의 범죄예방 고시는 「건축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 및 공공공간의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범죄예방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와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안)' 마련 및 고시 개정에 따른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지원하고, 건축·도시공간의 체계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건축물 범죄예방 정책 추진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수행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의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영진

2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건축물이나 공간환경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붕괴사고는 빈도수(화재 연간 약 3만 건, 붕괴 340건)나 피해 규모 면에서 직접적인 파장과 사회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주거시설을 제외할 경우, 일반적으로 화기를 사용하거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근린생활시설에서 많이 발생한다.

한편,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노인인구 증가, 1·2인의 소형가구의 등장, 공유경제 확산과 각종 기술을 이용한 생활서비스시설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기존의 실내 어린이 놀이터나 만화방이 휴게음식점과 복합도

어 키즈카페·만화카페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전체 가구의 22%)를 증명하듯 늘어나는 애견카페도 성업 중이다. 문제는 해당 시설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고, 그 과정에 1개 층 내부에 복층이 설치되는 등 실내공간 구조가 초기 허가시점에 비해 상당 부분 변형된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실내 공간에 설치된 복층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건축시장에서는 심각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바닥면적의 증가는 곧 연면적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허가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그에 준하는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정도로 간주되어 별도의 허가나 신고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법행위로 판단, 철거명령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대의 유권해석과 조치를 취하고 있어, 사업주와 지자체 간 소송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과 문제 인식을 토대로, 건축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향 및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시장의 경기부양을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맞닿아 있다. 또한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는 건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건축물 용도기준 재정립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은희

3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 중 개별 관광의 비중이 약 90%로 대다수가 개별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 관광 활동은 필연적으로 보행과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는데, 201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보행(관광)경로를 결정하는 데 이용한 중요한 정보매체 중 70%가 '모바일 검색', 42%가 '안내표지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외래 관광객은 온라인 기반 모바일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기반 보행 및 대중교통 안내체계도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이는 최근까지도 이들의 선호 관광지가 서울과 같은 특정 지역으로만 한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안내체계는 ‘공급자 중심’, ‘지역 장기적 계획과의 불일치’, ‘도시 차원에서 보행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와의 이질성’ 때문에 활용도와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2018년 2월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나, 이 역시 표지판 디자인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수요자 중심의 ‘도보 관광을 위한 적재적소 정보 전달’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기존 관광안내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보고자, 안내체계 구축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보행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개발하여, 2019년 가이드라인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분석방법론은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수준별로 제시될 예정이고, 이를 이용하면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지의 보행네트워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보행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안내표지판의 세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보다 합리적으로 도출된다면,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 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외래 관광객들의 선호관광지역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준

④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의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도로 시작한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주거여건이 극히 취약한 지역에 집수리 지원, 생활인프라 개선, 일자리·복지 등 휴먼케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저소득층 거주비율이 높아 주민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주거복지 사각

지대인 주거취약지역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조사(2012~2013)에 따르면 전국 354개 달동네가 주거취약지역으로 나타났고, 이 지역 내에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20%, 화재 등 안전취약 건물 41%, 상수도 미설치 가구 7%, 하수도 미설치 가구가 1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역은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비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물리적 지표(주택노후도, 무허가주택비율, 상하수도 설치비율, 도시가스설치비율, 공동화장실 사용비율 등)를 높게 두고 행정전담공무원이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 지자체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사업구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주거취약지역은 물리적 환경수준이 비슷한 정도로 열악하여 제한된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사업 당선을 목적으로 운영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구상서를 수립함으로써 집수리 대상가구 발굴과 주민공동체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 입지선정에 있어 주민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하고 일차리 창출, 문화예술활동 등 도시재생과 유사한 사업을 제시한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새뜰마을사업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와 공동촌,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과 같은 주거복지 사업 비중은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 연구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인 도시 주거취약지역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하향식(Top-Down) 방식과 상향식(Bottom-up) 방식이 결합된 국비지원체계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전국 동 지역을 대상으로 새뜰마을사업 후보지를 파악하기 위해, 물리적 지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로 구성된 복합 주거취약지수를 도출하여 도시지역 사업후보지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후보대상지의 유형별 성과 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장소 중심의 종합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수정

* 지역발전위원회(2016), 「도시새뜰마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LH, p.15.

제6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4월 16일(화)과 17일(수) 양일간 인천광역시에서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과 함께 제6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국가의 건축도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발전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건축도시정책연구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번 네트워크 행사는 ‘도시재생기업 (CRC): 중간지원조직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지자체와 민간의 자생적 도시재생을 지속하기 위해 도시재생기업(CRC)의 정책적 효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16일에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CRC의 정책적 효과와 실효성 확보 방안, 지역의 시도와 성과를 공유하였다.

먼저 윤주선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도시재생기업의 적용과 시도’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승욱 연구위원(부산연구원)의 ‘부산시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손경주 대표(창인송인지역 도시재생기업)가 ‘지역·주민 기반 CRC의 실험’, 박은진 대표((주)공유를위한창조)가 ‘이바구캠프로 보는 도시재생기업의 성장기’ 발표로, 지역의 성공적인 CRC 적용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17일에는 네트워크에 참석한 지역발전연구원 전문가들과 유휴공간 재생 프로젝트 COSMO 40을 답사하였다. COSMO 40은 과거 화학공장단지의 정제시설을 공연, 전시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도시재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영호



*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부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인천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AURI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5월 23일(목) 서울시건축전시관에서 2019 AURI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AURI’를 주제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그간 연구소가 수행한 5개의 분야를 선별해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건축연구단 엄철호 연구위원이 ‘공공건축이 지역과 생활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좋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지역재생연구단 서수정 선임연구위원이 ‘마을을 재생하는 장소만들기’라는 주제로, 마을재생에서 지역재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간 환경 통합 마스터플랜 발전 모델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서 도시·설계연구단 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보행자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걷기 좋고 안전한 공간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도시·설계연구단 조영진 연구위원이 ‘건축 도시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하다’를 통해 범죄 불안과 발생 범위를 줄이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소개하고, ‘한국형’, ‘증거 기반’, ‘스마트’, ‘통합’, ‘안전’을 향후 연구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공간문화연구단 이종민 부연구위원이 말아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한옥’을 발표했다. 주거뿐 아니라 일상에서 한옥을 쉽게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보고회 개최를 통해 국가 건축정책 확립을 위한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국민들과의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다.

고영호

제1차 경관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5일(수),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제1차 경관포럼을 열었다.

경관은 우리 생활 터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요소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올해 국토경관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지역재생연구단에 경관센터를 설치하며, 관련 제도 운영 지원부터 경관행정 및 관련 주체 역량강화,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관센터는 국토경관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앞서 그동안 국토경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를 통해 형성된 국토경관에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올해 총 4차례 경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린 제1차 경관포럼에서는 ‘국토경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건축, 도시, 조경,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경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세부 주제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경관의식 향상과 경관정책의 변화, ▲국내 경관법제 도입과 추진경과, ▲인천의 가치 향상을 위한 경관행정체계 구축, ▲경관정책 실효성 강화방안으로서 시민참여 경관정책사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성과와 한계이며, 이를 통해 미래 국토경관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상민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사전행사 개최



news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계획부문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행사를 개최했다.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한옥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계획, 준공, 사진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한옥공모전의 참가예정자 또는 한옥설계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사전행사는 5월 24일(금)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6월 7일(금) 대전 복합문화공간 애트에서 두 차례 진행되었다.

1, 2차 행사에 걸쳐 한필원 운영위원장(한남대학교 교수)이 기초강연을 맡아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주제를 설명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한옥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1차 행사에서는 조정구 대표(구가도시건축)가 ‘도시마을의 재생’, 강성원 대표(건축사사무소강희제)가 ‘한옥 주민생활시설 설계과정’을 주제로, 2차 행사에서는 김용미 대표(금성건축)가 ‘도시의 정체성 문화의 정체성 우리의 삶터, 우리다움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올해 9회를 맞아 ‘한옥, 도시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라는 주제로, 한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4월 19일(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스마트도시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올해 1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3월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로,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도시 미래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정책 연구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스마트도시 혁신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정부지원 교육·연구사업의 공동참여 및 지원 ▲데이터과학 역량 강화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학술·정보·인력 등 상호교류 ▲산학연계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와 4월 26일(금) SH 임원 회의실에서 '사용자 주도형 공간조성'을 통한 마을재생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자 주도형 공간조성'이란 공간의 소유자·운영자 등 공간 사용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청년몰·공유공간·소규모 상점 등 저예산·소규모·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재생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용자 주도형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공간복지 플랫폼 대상 공간의 활용방향 및 공간 확보, 공간 조성 자원 마련(SH) ▲공간복지 플랫폼의 사용자 주도형 재생을 위한 전문가 풀 확보와 워크숍 기획 및 아카이브(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와 SH의 '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공간복지 혁신플랫폼' 시범사업 간 연계·협력을 위해 추진되었다. '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공간복지 혁신플랫폼'은 저층공공주택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되며, 선정된 청년건축가 4개 팀에 SH의 저층공공주택 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울시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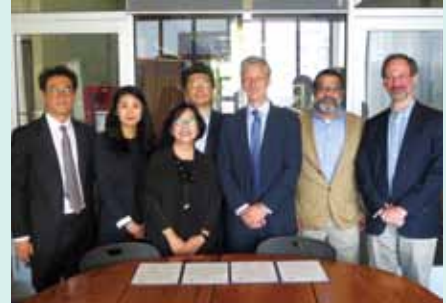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5월 22일(수) 서울시와 서울의 도시·건축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건축·도시공간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지역 도시·건축 분야 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술 교류 및 정보 공유 등 지역 건축·도시공간의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교류 ▲공동캠페인, 교육 및 조사 프로그램 교류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여, 건축·도시공간정책의 지적 토대를 함께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 도시건축센터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워싱턴대학교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건축대학(College of Built Environments)이 5월 30일(수) 건축문화자산 보존과 활용의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워싱턴대학교 건축대학은 CPAR(Center for Preservation and Adaptive)를 설립하여 건축·도시공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도시 활성화 방안의 연구, 교육,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자료 공유,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수행 등에 힘을 모으고, 건축문화자산 분야의 국제협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협의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양 기관의 연구, 발표 등 학술적 정보와 연구인력에 관한 교류 ▲국제협동연구 발굴과 추진 ▲국제학술지, 국제학술대회에 공동연구결과의 합동발표 등이 있다.

컬럼비아대학 리처드 플런즈 교수 초청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24일(월) 7층 대회의실에서 컬럼비아대학 건축·도시계획 및 보존학과 대학원 교수 리처드 플런즈(Richard Plunz)를 초청해 'The social media work that we have been doing in the Urban Design Lab ; specifically around the Twitter research related to New York City public space'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플런즈 교수는 도시 환경에 대한 인지적 지도의 개념과 역사를 소개하며, 공간 설계를 위한 운영 도구로서 인지적 지도의 활용성을 설명하였다.

이어 도시공간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높이는 도구로 진화한 소셜 미디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세대의 도시 디자인 및 계획에 활발히 적용될 것이라 전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뉴욕시의 프로젝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소규모 분산 인프라 성능에 대한 커뮤니티 기반 모니터링을 위해 설계된 바이오스마일스(biosmiles) 앱 개발 프로젝트로, 뉴욕시의 녹색 인프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 사례는 트위터(twitter)를 기반으로 한 맨해튼 공원 내 시민정서에 관한 연구이다. 뉴욕시 공원에 대한 트위터 메시지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웰빙지수를 측정하고자 한 사례이다.

앞선 사례를 통해 플런즈 교수는 도시 설계와 계획의 측면에서 소셜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싱가포르대학 칼빈 추아 교수 초청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20일(목) 7층 대회의실에서 싱가포르대학 기술·디자인학과 교수 칼빈 추아(Calvin Chua)를 초청해 'Enterpreneurship and Urbanism in the DPRK, Recording Citi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을 통해 평양의 도시 변화와 사회 변화를 소개하고 서울과 북한의 도시를 잇는 황해루프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추아 교수는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평양의 투어사이트, 위성 등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통해 평양의 도시 개발 변화를 설명했다.

또한 추아 교수는 지난 10년간 싱가포르 NGO 조선교류(Choson Exchange)에서 활동하며 평양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북한 공무원들을 싱가포르에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건축의 이해와 특징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황해루프계획 등을 통해 다른 도시들이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과 개성, 평양을 잇는 원형의 도로를 설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019 auri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4월 30일(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19 auri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내가 꿈꾸는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 되어보기'를 진행하였다.

auri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 학생들의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접 그들의 업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세종시 연서중학교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의 역할과 업무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 대학 전공과 학습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짝을 이루어 각자 꿈꾸는 건축물과 도시 등의 모습을 서로 논의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공간을 그리고 구체화하면서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의 폭넓은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